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二十二)

칸트氏

鼎言生

칸트氏 (四)

『諸能力 一般의 發達』 一般의 諸能力을 完全히 發達하며 又是 此를 完全히 使用케 함을 目的으로 하여, 如何한 職業이라도 其能力을 有케 할 人物을 要하는 것이다. 然하여 此를 身體的과 道德的의 二個로 分하여 身體的에 屬한 者는 諸能力을 發育하여 此를 使用하고 練習케 할 것이다. 諸能力을 練習과 其發育은 兒童으로써 스스로 進하여 爲할 者 아니오, 命令으로써 爲할 者이니 全히 受動的이라. 此에 反하여 道德的의 發達은 兒童의 精神에 存한 바 道德的 觀念을 益々히 發達하여 此에 依하여 諸般의 行動을 行할 것으로써, 全히 自動的이라. 然하여 人을 善히 함에 一의 義務로써 行하여 此義務는 卽善의 心を 養成하는 所以이라.

『諸能力 特殊의 發達』 諸能力 特殊의 發達은 想像力, 記憶力, 注意力, 理解力, 判斷力 等の 發達함을 目的함과 共히 更히 理性을 發達하여 事物의 原因 結果를 探究助長케 할 것이다. 然하여 此等의 能力을 發達코저 함은 第一 兒童으로 一의 希望을 起하며 其希望을 達하기에 至할 것이오, 此外에 愛憎의 念을 養成하여 惡을 惡하고 善을 愛하는 道義的 觀念을 養成하지 아니함이 不可하도다. 故로 道義的 觀念을 養成함에는 先히 兒童의 品性を 養成함에 有하니, 品性を 養成함에는 第一 從順의 習慣을 作하며, 第二 誠實心を 養成하며, 第三 親睦性を 養成하며, 第四 公明心を 持케 할 것이다.

『第二 實際的 教育』 實際的 教育은 主하여 道德의 實踐에 關한 教育이니 第一, 事物에 熟達하여 利巧케 할 事, 第二, 世事に 關한 智識을 有할 事, 第三, 德行家이 되게 할 事 等이 是이라. 第一, 事物에 通熟케 할 時는 兒童으로써 凡事物의 其根底로부터 理解하여써 其智識의 實際에 適用함에 毫도 欠點이 無하여 能히 咀嚼了解케 할 事이오, 第二, 世事に 關한 才智에 對하여는 既히 理解한 智識을 世事に 適用할 技術이 되게 할지니, 換言하면 處世上

의 才智를 有케 할 것이라. 第三, 德行家가 되게 함에는 自己의 嗜慾을 制하고 同情의 心を 養함으로써 主眼을 作할 者이라. 故로 自己를 尊重히 할 義務가 有함과 共히 他人을 尊重히 할 義務가 有함을 養함은 德性 涵養上의 가장 重大한 者이라. 卽 自重의 義務라함은 自己의 嗜慾을 制하여 人間이 人間된 價値를 失치 아니함을 力할지며, 情慾에 耽하고 邪惡에 陷함을 避할지라. 又 惡事를 爲하고 虛誕을 吐하여 社會의 制裁에 觸함과 如함은 此가 自己를 重히 함이 아니라 도로혀 自己를 輕侮하는 所以이라. 故로 스스로 制하고 스스로 慎할 것이로다. 又 他人을 尊敬할 義務는 自己가 自己를 尊敬하는 義務가 有함과 共히 他人도 또한 自己에 對하여 尊敬의 義務가 有함을 覺할지니, 自己에 對한 義務心은 不羈獨立의 精神을 養할지오, 他人에 對한 義務心은 他人에 恥辱을 與치 아니함으로써 道德的 實踐의 人物이 되게 할지라.

『宗教에 對한 氏의 意見』 兒童으로써 宗教上의 思想과 信仰을 有케 함은 教育上 大히 必要한 事이라. 宜히 兒童으로써 天地萬物의 秩序가 整然하여 亂치 아니함을 知하며, 萬物은 如何한 目的으로써 此世에 存在함인가, 又是 萬物은 吾人에 對하여 如何한 關係가 有함을 了解케 할 것이로다. 進하여 此世界의 宏大無邊함과 甚히 美妙함을 知케 할것시오, 此天地萬物을 創造하고 此를 整然한 狀態로써 主宰하는 全知全能의 神이 有함을 知케 할 것이라. 抑 宗教된 者는 吾人의 頭腦에 蓄한 바 天則이니, 換言하면 神이라 云하는 智識을 應用하여 一種의 倫理學으로 할지라. 故로 宗教와 道德이 互相不適合즉 宗教는 何의 價値를 不有한 者가 되는도다. 然則 兒童의게 宗教를 敎함에는 先히 其頭腦 中으로부터 天則으로 始치 아니함이 不可하니, 此天則은 明智라 云하는 者로다. 卽 明智라 함은 自己의 行爲를 天則에 適合케 하는 바의 指導이니, 萬一 自己를 神의 代表者로써 信치 아니한즉 其天賦의 天則은 全히 效能이 無하는 者이오, 宗教도 또한 道德을 附加하여 說치 아니한즉 何等의 效果를 得치 못하는 것이라. 然즉 單히 口로써 神을 讚美할 뿐 自己의 行爲를 顧치 아니한즉 宗教上의 義務를 盡한 者 아니오, 또한 外形上의 儀式을 敎한즉 迷信에 陷하기 易한 것이로다. 故로 神을 敬하고 神을 信함을 先히 其行爲가 神意에 背치 아니함을 無할지니라.

『氏의 敎授法』 兒童의게 事物을 敎授함에는 其年齡에 應하고 心理發達의 程度에 應치 아니함에 不可하도다. 然하여 消極的의 敎育을 施하며 其自然에 坊任하여 人爲를 加함을 避할지니, 스스 事物을 研究 理解케 함을 力하며 外部로부터 擅히 此를 幫助함은 大히 不可하도다. 氏는 『소쿠라데쓰』氏의 問答法을 喜하여 此法을 應用함으로써 其理性을 發達하기에 力하며 講義法, 問答法, 發問敎法의 三目に 別하여 敎授를 하니라.